

가부장적 원가족 분위기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

오 현 주 최 승 미 조 현 권 정 혜†

고려대학교 부부상담연구소

본 연구는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고, 부부와 같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구분되는 커플자료의 분석으로 APIM 방식을 채택했다.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결혼기간이 3년 미만이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98쌍(186명)을 임의표집방법으로 모집하고, 개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결혼만족도에 있어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유의한 자기효과를 보였으나,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험은 자기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험은 부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남편 원가족의 가부장 경험은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통해 남편 본인의 결혼만족도 뿐 아니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도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료적 개입에 있어 신혼부부 중 특히 남편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신혼부부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적응을 위해서는 부부 의사소통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가부장, 원가족, 짝자료, APIM, 신혼부부,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 본 논문은 교신저자의 교내특별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자료수집을 도와준 이승근과 이현에게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Tel : 02-3290-1676, E-mail : junghye@korea.ac.kr

개인의 원가족 경험이 결혼 이후의 생활 및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아내와 남편 중심의 이차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원가족, 확대가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Fine, 1988; 최규련, 1987; 유연지, 2006; 박봉순, 김영희, 2010; 이재림, 김영희, 2011). Larson 등(1994)은 부모세대의 결혼 생활의 질, 부모-자녀 관계, 가족 환경 등이 자녀세대의 결혼생활과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남편의 원가족 환경이 남편 뿐 아니라 아내의 결혼만족 모두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이와는 반대로 아내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남편의 원가족 관계 경험보다 유의하게 이후의 결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는데(Sabatelli & Bartle-Haring, 2003), 이러한 두 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기보다 남편과 아내 모두의 원가족 경험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미혜, 2011). 특히, 성인이 된 후 부모세대로부터 분리되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결혼을 전후로 오히려 원가족과의 유기적, 상호 의존적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우리나라 가족 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각 배우자의 원가족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한편, 가부장적 가족 경험 혹은 가부장 중심 태도란,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남편/부(父)가 아내/모(母)에 비해 가정에 대한 보다 많은 지배권을 가지며, 가정의 중심적 권한과 최고 지위를 남편/부(父)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가족구성원 및 부부 모두가 동의·인정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Nock, 1998). 물론 이러한 동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심정적 지지와 이해에 기반한 동의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러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오랜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반하여 암묵적으로 조성된 가정 내 분위기 일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 가부장적 태도란 전통적인 유교사회에 기반한 남성중심적 성역할 태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남녀 사이에 확연히 구분되는 역할 및 지위를 상징하고, 대체로 아내에 비해 남편이 가정 내 대소사에 대한 결정권한 및 지배권을 지니며 이를 가족 구성원이 존중하고 따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가부장적 태도는 근대화과정에서 상당부분 약화되면서 이제는 남녀 모두 평등한 주체로 사회생활이나 가정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나뉘어져 사회적, 문화적 변화 수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간의 연구를 보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태도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평등한 역할 개념을 획득할수록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mato & Booth, 1995; 최규련, 1993).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주요 역할을 가사 및 양육과 같은 전통적인 역할로 한정하고 요구하는 반면, 근대적 남녀 평등의식을 지닌 아내가 변화된 성역할에 대한 가치와 실천을 요구할 경우, 서로의 관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체로 남녀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인식은 원가족 내에서 부모의 상호작용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학습되는 경우가 많은 바, 원가족 내의 가부장적 분위기 여부가

자녀세대 부부 관계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 및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주요 변인으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들 수 있는데, 그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간의 대화 패턴은 부부관계를 예측하는 가장 신뢰로운 지표이며, 적절한 대화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이 원만하고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Gottman, 1993).

거의 대부분의 부부 연구자들은 부부갈등 그 자체보다 갈등을 다루는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부부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의사소통 기술-결핍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한 배우자 또는 두 배우자 모두의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기술이 부족한 부부들은 자신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덜 만족할 것이고, 자신들의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덜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Burleson & Denton, 1997). Jacobson과 Margoline(1979)은 결혼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는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특히 Christensen과 Sullaway(1984)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부부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가지게 된다고 하며 의사소통 패턴을 상호건설, 상호회피, 손상, 요구-위축 등의 패턴으로 나누었다. Caughlin과 Huston(2002)의 연구는 요구-위축 패턴은 정서적 부정성과 애정표현과 같은 중요한 개인 수준 행동의 영향을 통제 한 뒤에도 결혼만족을

상당 부분 설명한다고 제안한다. Gottman(1994)은 부부 간의 ‘담쌓기(stonewalling)’ 즉 갈등을 다루지 않고 철수하는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의 질을 유의미하게 손상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렇듯 빈약한 의사소통 기술을 지닌 부부들은 대화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오해하게 하고 화나게 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 관계로 변화되기 쉽다. 부부간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증가할 때, 부부의 문제해결 능력이 감소하고 그것은 다시 결혼불만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Bradbury, Cohan, & Karney, 1998; Kieclt-Glaser & Newton, 2001; 이지은, 윤호균, 2007; 박영화, 고재홍, 2005; 장문선, 김영환, 200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자녀세대 부부관계의 질에 대한 주요 예측 요인으로 지목된 원가족 분위기 중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부부사이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성의 규명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새로운 가족체계의 구성 및 부부로서의 연대감과 정체감을 이제 막 형성해 나가는 초기 단계로, 상당 부분 원가족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는 상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예측 요인으로서 원가족의 관계 경험이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사이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이 둘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결혼 기간이 3년 미만이며, 자녀가 없는 부부(임신 중인 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중 남순현과 한성열(2003)의 연구의 신흠부부 정의를 차용하였다. 가족생활 주기적 관점에서 결혼 이후 두 성인 남녀만의 시기로 신흠기를 정의한 Duvall(1957; 남순현, 한성열, 2003 재인용)의 관점에 더하여, 최근 자녀 없이 신흠기에서 바로 중년기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유무 외에도 결혼 후 최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들로 시기적 제한을 두어 대상을 정의하였다. 신흠부부가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 및 눈덩이 표집 등의 임의 표집 방법을 통하여 대상을 확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86명(98쌍)의 자료가 수집되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의 주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 연령은 남편이 32.43세($SD=2.92$), 아내가 29.68세($SD=2.58$)였으며, 신흠부부의 평균 결혼기간은 9.46개월($SD=8.13$)이었다. 남녀 모두 연구참여자의 70% 이상이 대졸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였으며, 남성의 96.9%, 여성의 77.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남편	아내
	(n=98)	(n=98)
연령	32.43세(2.92)	29.68세(2.58)
교육정도		
중졸이하	0	0
고졸	4	6
전문대졸	4	12
대졸	68	64
대학원졸	22	16
월수입		
100만원 미만	4	8
100~200만원	18	25
200~300만원	36	30
300~400만원	19	7
400~500만원	9	4
500만원 이상	9	1
해당없음(수입없음)	3	22

측정도구

전반적 불만족 척도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이하 K-MSI)는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Snyder(1979)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와 이 척도의 개정판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재표준화한 검사로 총 160문항, 1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과 부부관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K-MSI의 하위척도 중 전반적 불만족 척도 (General Dissatisfaction Scale: 이하 GDS)를 사용하였다. GDS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는 남녀 각각 .96과 .92였다.

가부장 척도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은 가부장적이다.’, ‘우리 부모

님은 권위적이다.’, ‘우리 부모님은 일방적이다.’를 내용으로 하는 총 3문항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3점에서 15점이며, 내적 일치도는 남녀 각각 .92와 .87이었다.

의사소통 패턴 척도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개발한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이하 CPQ)를 임승락(1998)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상호회피’, ‘남편-요구/아내-철회’, ‘아내-요구/남편-철회’, ‘전체 요구/철회’, ‘손상적 의사소통’의 6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처음 생길 때, 문제를 의논하게 될 때, 문제에 대한 의논이 끝난 후에 서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의사소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지각을 3단계로 나누어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인 ‘문제를 의논하게 될 때’에 해당하는 12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4문항, 전체요구/철회 4문항, 손상적 의사소통 4문항이 그것이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언제나 그렇다(9점)’의 9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일치도는 남녀 각각 .79와 .78이었다.

분석절차

일반적인 통계분석은 각 사례의 독립성을 가정한다. 그러나 함께 수집된 남편과 아내와 같은 짝자료는 서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의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Kashy와 Kenny (2000)는 부부처럼 서로 상관이 있는 커플자료는 상호비독립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분석단위는 커플이 되므로, 이를 고려한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이하 APIM)’을 제안하였다.

APIM은 한 개인의 특성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자기효과; actor effect)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상대방효과; partner effect)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짝 분석 방법으로 부부와 같이 상호비독립성이 존재하는 자료를 검증할 때 이용된다(Kenny, 1996). 또한 개인과 커플을 이루고 있는 상대방의 측정변인 사이의 유사한 정도를 상호성(reciprocity)의 크기로 간주한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APIM의 효과 추정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후 이들 효과 간 상대적 크기 비교를 위해 등가제약을 설정한 모형에서 카이 자승 검증을 하였다. 추정된 계수들의 크기를 성별에 걸쳐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둘 다에 걸친 점수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Kenny, Kashy와 Cook(2006)의 권고에 따라 APIM 추정치들을 구하기 전 각 변인의 점수들은 사전에 남편과 아내 둘 다에 걸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Z점수로 변환되었고 이들 표준화된 점수로 효과 추정이 이루어졌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Sobel test를 통해 산출된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결 과

기초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측정변인들에서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평균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짝진 표본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에 대하여 아내에 비해 남편이 유의하게 높은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를 보고하였다($t = 2.10, p < .05$). 한편, 전반적 불만족 수준은 아내에 비해 남편이 유의하게 높아($t =$

표 2. 측정변인에 대한 남녀 차이

	남편	아내	<i>t</i>
가부장 분위기	7.57 (3.18)	6.70 (2.80)	2.10*
부정적 의사소통	25.80 (12.59)	24.79 (11.52)	.93
전반적 불만족	20.24 (2.73)	19.16 (3.67)	4.32***

* $p < .05$. *** $p < .001$.

4.32, $p < .001$)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아내에 비해 남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의사소통의 경우, 남녀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 변인들 사이의 상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부 간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 외 변인들은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남편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 및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 불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내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 역시, 아내와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 및 각자의 결혼 불만족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은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 및 남편과 아내의 결혼 불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 역시 남편과 아내의 결혼 불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

표 3. 남편_아내 변인 간 상관

	1	2	3	4	5
1. 남편_원가족가부장	1				
2. 아내_원가족가부장	.08	1			
3. 남편_부정적의사소통	.33**	.27**	1		
4. 아내_부정적의사소통	.25**	.33**	.64**	1	
5. 남편_전반적불만족	.43**	.23**	.62**	.54**	1
6. 아내_전반적불만족	.30**	.30**	.50**	.48**	.63**

** $p < .01$.

표 4. 측정동일성 확인을 위한 χ^2 차이검증

모델	χ^2	df	χ^2 difference	TLI	CFI	RMSEA
기저모델	181.24**	126		.921	.941	.067
제약모델	176.88**	120	4.40	.914	.939	.070

** $p < .01$.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가부장적 원가족 분위기,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 결혼 불만족에 대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RMSEA = .070, TLI = .914, CFI = .939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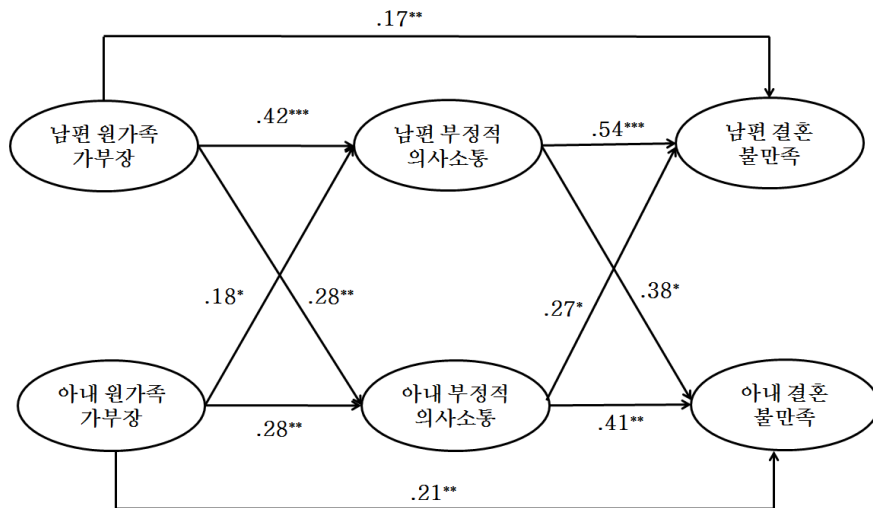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 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χ^2 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검증

측정 동일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남편과 아내의 쌍 자료가 한 척도 내에서 동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Kenny, Kashy와 Cook(2006)이 제안한 방식대로

원가족 가부장 분위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PIM 분석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림 1과 같이 다음의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한 결과, 모형적합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원가족의 가부장분위기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

표 5. 경로계수

		B	β	S.E	t	
남편_원가족가부장	→	남편_부정적의사소통	.80	.42	.18	4.39***
아내_원가족가부장	→	아내_부정적의사소통	.44	.28	.14	3.17**
남편_원가족가부장	→	아내_부정적의사소통	.38	.28	.12	3.22**
아내_원가족가부장	→	남편_부정적의사소통	.39	.18	.17	2.27*
남편_부정적의사소통	→	남편_전반적불만족	.29	.54	.08	3.51***
아내_부정적의사소통	→	아내_전반적불만족	.26	.41	.10	2.55**
남편_원가족가부장	→	남편_전반적불만족	.17	.17	.07	2.60**
아내_원가족가부장	→	아내_전반적불만족	.22	.21	.08	2.76**
아내_부정적의사소통	→	남편_전반적불만족	.20	.27	.10	2.12*
남편_부정적의사소통	→	아내_전반적불만족	.18	.38	.08	2.26*
남편_원가족가부장	→	아내_전반적불만족	.06	.07	.06	1.01
아내_원가족가부장	→	남편_전반적불만족	.08	.06	.07	1.11

* $p < .05$. ** $p < .01$. *** $p < .001$.

도를 살펴보면, TLI = .897, CFI = .923, RMSEA = .087로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로계수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남편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beta = .42, p < .001$) 및 전반적 결혼불만족($\beta = .17, p < .01$)에 미치는 자기 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아내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beta = .28, p < .01$), 전반적 불만족($\beta = .21, p < .01$)에 미치는 자기 효과 역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아내 모두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본인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및 본인의 결혼 불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편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beta = .28, p < .01$) 및 아내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beta = .18, p < .05$)에 미치는 상대방효과 역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아내의 결혼불만족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beta = .38, p < .05$) 및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남편의 결혼 불만족($\beta = .27, p < .05$)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은 남편의 결혼불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내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은 다시 아내의 결혼불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남편과 아내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상대방의 결혼불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의사소통패턴의 매개효과 검증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부정적 의사소통패턴을 통해 전반적 결혼 불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후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및 간접효과의 크기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Sobel test를 통해 산출된 Z값이 1.96 보다 크거나 -1.96 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표 6에서 보면 총 4개 경로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관찰되고 있는데, 첫째 남편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험이 남편의 전반적 결혼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내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험이 아내의 전반적 결혼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효과와 관련하여 남편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험이 아내의 전반적 결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 및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 각각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아내의 전반적 결혼불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을 매개하여 아내의 결혼불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아내의 전반적 결혼불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원가족의 경험이 자녀세대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

표 6. Sobel test 결과

경로			간접효과 크기	Sobel Z
남편_원가족가부장	→ 남편_부정적의사소통	→ 남편_전반적불만족	.23	4.39**
남편_원가족가부장	→ 아내_부정적의사소통	→ 남편_전반적불만족	.08	1.77
남편_원가족가부장	→ 남편_부정적의사소통	→ 아내_전반적불만족	.14	2.01*
남편_원가족가부장	→ 아내_부정적의사소통	→ 아내_전반적불만족	.10	1.99*
아내_원가족가부장	→ 아내_부정적의사소통	→ 아내_전반적불만족	.10	1.98*
아내_원가족가부장	→ 남편_부정적의사소통	→ 아내_전반적불만족	.07	1.60
아내_원가족가부장	→ 아내_부정적의사소통	→ 남편_전반적불만족	.09	1.76
아내_원가족가부장	→ 남편_부정적의사소통	→ 남편_전반적불만족	.07	1.90

* $p < .05$. ** $p < .01$.

에 의해 확인된 결과로, 원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특정 문제가 좀더 민감하게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원가족의 문제를 재현하는 악순환이 보고되고 있다(김경자, 2003; 김현정, 1999; 남순현, 한성열, 2003). 이러한 원가족의 영향은 특히 원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혹은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 때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으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달성하고 부부 두 사람 중심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현재의 결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남녀 186명(98쌍)을 대상으로 이들의 원가족 가부장적 경험과 결혼만족도,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특성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부부 단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부부를 대상으로 했다더라도 각 배우자의 특성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와 상대 배우자에게 미치는 상대방 효과를 분리해서 비교하는 분석적 시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완하여 부부처럼 상호비독립성이 높은 커플자료에 대해, APIM을 채택하여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리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보면, 먼저 부부의 원가족 분위기 중 가부장적 특성에서 아내보다는 남편이 지각하는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태도와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고미혜(2011)의 연구에서, 가부장적 태도에 대한 지

각에서 남녀의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는 다소 불일치되는 결과인데, 아마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이 신혼부부로 평균 연령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젊은 세대였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노인세대에 비해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의 영향이 상당부분 희석된 환경에서 여성의 교육과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 확대, 양성 평등 교육의 수혜를 받은 젊은 세대들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를 상대적으로 덜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향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에게는 전통적인 가치와는 달리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역할과 태도의 습득이 기대되는 데 반해, 남성의 경우 여전히 한쪽에서는 남자, 아들, 가장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부여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선행 연구들(권정혜, 채규만, 1998; 최규련, 1987)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표집에서의 편향에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성역할의 변화에 따라 신혼기의 남성과 여성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실질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Faulkner, Davey와 Dasvey(2005) 및 Amato와 Booth(1995)의 연구에서 보면,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유의하게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 아내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수용 정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갈등 및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

시 말해,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 역시 활발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거부하고 좀더 자기 주장적이고 주도적인 부부관계를 요구하는데 반해,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경향이 많아 결혼 생활에서 자주 갈등을 겪고 결혼만족도 수준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아내 중 77% 이상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에 대한 지각 수준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서 인용한 연구들의 지적에 기반해서 볼 때, 여성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높은 학업 성취와 사회진출을 보이면서, 보다 개방적인 성역할을 취하도록 교육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이 중시되는 가정 내 분위기에서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남성들의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즉, 여성의 교육 및 사회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공존하는 동시에 부부간의 변화된 성역할 기대로 양육과 가사에 일정부분 참여를 요구받는 오늘날의 기혼남성이 느끼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심적 부담은 이전 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전세대의 남성들이 누려왔던 가장으로서의 지위나 권위는 상당부분 약화된 데 반해, 여전히 가정경제의 책임자라는 의무와 함께 가사와 양육에서의 역할 분담이라는 새로운 의무 등이 남성이 지각하는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편과 아내 모두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험이 개인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편과 아내 각각의 원가족 경험은 개인의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자기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아내 모두 원가족에서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본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험이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는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원가족 특성 자체가 남편,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험과 부정적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보면, 남편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본인의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 뿐 아니라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패턴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에 대해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모두 지니고 있으며, 이는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부정적인 의사소통패턴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 만족도에 있어 각각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모두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과 아내 각자의 부정적인 의사소통패턴이 상대배우자 뿐 아니라 본인의 결혼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의사소통 수준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임승락, 1998).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면, 총 4개의 경로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관찰되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남편의 가부장적 원가족 경험은 남편의 부정적인 의사소통패턴 및 아내

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매개해 남편과 아내 각각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아내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험은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을 매개해 오로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 모두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험 자체가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험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한 후에도 보다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며 본인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으로(김현정, 1999; 전영주, 1998; 전춘애, 1994), 여성에 비해 남성이 원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부부관계 역시 여성의 원가족 경험보다는 남성의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기존의 견해를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있다(하상희, 2008).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대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신세대 부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원가족의 가부장적 특성이 부부관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남편의 원가족 분위기가 아내의 원가족 배경보다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원가족 분

위기 그 자체만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원가족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원가족에서 학습된 가부장적 태도와 행동들이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통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전달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Karney와 Bradbury(1995)가 결혼의 질에는 배우자 각각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개인적 취약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적응과정 즉, 배우자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변화를 다룰 때 서로에 반응하는 양식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부의 의사소통은 개인의 취약성 및 갈등 그 자체보다 결혼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치료적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의 원가족 경험과 같은 고정적인 과거경험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부단위의 개입보다는 개인단위의 개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원가족 문화가 현재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것을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도구인 부부의 의사소통 기술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치료 현장에서 특히 신혼부부가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원가족 문화에 대해 수용적이고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협력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 훈련이라는 통로를 이용해 각 배우자의 원가족으로부터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자기 분화를 도모하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남편의 경우 원가족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아내의 경우 부정적인 의사

소통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만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원가족 경험이 갖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대해 부부 치료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부치료 장면에서 치료자들은 남편 스스로 자신의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에 대해 탐색하고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부부관계에 미치는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남편의 원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하중에 대한 아내의 인식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원가족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 지나치게 요구적이거나 비난하는 식의 의사소통이 아닌 보다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대화와 남편과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부부 단위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형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피험자 확보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연구 대상의 학력과 경제적 지위 등에서 편중이 있어 이를 국내의 신혼부부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자기보고 설문지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부부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 지각에만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한 대단위 표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항목 중 일부 항목만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 요인만 평가하였는데,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 중에서도 어떤 양상이 원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세부적 분석에는 자기보고 설문방식 이외에도 부부가 실제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평가를 함께 병행하는 중다평가적 기법을 도입한다면 부부의 관계양상에 대해 보다 입체적 평가가 가능하고 실제 부부치료에 활용할만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미혜 (2011). 가부장적 태도와 노년기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효율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타당화 연구 II: 이혼상담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139-150.
- 김경자 (2003).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 (1999). 원가족 경험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주시 결혼초기부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 한성열 (2003). 신혼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05-523.
- 박봉순, 김영희 (2010).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1-11.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

- 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유연지, 조현주, 권정혜 (2008).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고부,옹서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33-451.
- 이재림, 김영희 (2011).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불안과 행복감을 매개로. 대한가정학회지, 49(7), 13-24.
- 이지은, 윤호균 (2007). 기혼여성의 마음챙김과 부부의사소통패턴, 결혼만족도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331-345.
- 임승락 (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 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문선, 김영환 (2003). 기혼여성 우울증 환자의 결혼만족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의사소통패턴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99-414.
- 전영주 (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최규련 (1987). 한국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 (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62-84.
- 하상희 (2008). 기본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29-141.
- 홍세희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다집단 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 미발간 워크샵 교재.
- Amato, P. R. & Booth, A. (1995).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and perceived marital 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2), 58-6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1-1182.
- Bradbury, T. N., Cohan, C. L., & Karney, B. R. (1998). Optimizing Longitudinal research for understanding preventing marital dysfunction. In T. N. Bradbury (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pp.279-31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leson, B. R., & Denton, W. H.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marital satisfaction: Some moderating effe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4), 884-902.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Unpublished questionnair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Duvall, E. M. (1957).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Faulkner, R. A., Davey, M., & Dasvey, A. (2005). Gender-Related Predictors of Change in

-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3(1), 61-83.
- Fine, M. (1988). Sexuality, schooling and adolescent females: The missing discourse of desire. *Harvard Educational Review*, 58(1), 29-53.
- Gottman, J. M.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Gottman, J. M. (1993). A theory of marital dissolution and stabi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1), 57-75.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 divorc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al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1), 3-34.
- Kashy, D. A., & Kenny, D. A. (2000). The analysis of data from dyads and groups. In H. T. Reis & C. M. Judd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ieclt-Glaser, J. K., & Newton, T. L. (2001). Marriage & health: His and hers. *Psychological Bulletin*, 127(4), 472-503.
- Larson, J. H., & Holman, T. B. (1994). Premarital prediction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2), 228-237.
- Nock, S. L. (1998). *Marriage in men's liv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batelli, R. M., & Bartle-Haring, S. E. (2003).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1), 159-169.
- Snyder, D. K. (1979).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1차원고접수 : 2013. 1. 28.
심사통과접수 : 2013. 3. 05.
최종원고접수 : 2013. 3. 23.

**Effect of the origin family's patriarch atmosphere on
marital satisfaction of the newlywed couples: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communication patterns**

Hyun-Joo OH

Seung-Mi Choi

Hyun Cho

Jung-Hye Kwon

Korea University Marital Counsel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he patriarch atmosphere of origin family on marital satisfactions. Ninety-eight newlywed coup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spent less than three years in married having no children. The study examined the way how the patriarch atmosphere of the origin family of couples affected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patriarch atmosphere of the husband's and wife's origin family had a significant actor effect his/her marital satisfactions, whereas they presented a non-significant partner effect on it. It indicated that the patriarch atmosphere of origin family had an actor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whereas it didn't have a partner effect. In addition the patriarch experience of the origin family indirectly affected on marital satisfaction by mediating the negative communication pattern of the couples. In particular, the husband's experience from the patriarch family affected not only on his own marital satisfaction but also negatively on wife's satisfaction through their negative communication pattern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marital intervention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a husband's patriarch experience of his origin family on marital satisfactions, and limitation and suggestion of this present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patriarchism, origin family, dyadic data, APIM, newlywed couple, marit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patterns.*